

# 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6 호

2018. 11. 22

10월 초순 일찍 찾아 온 추위에 겨울을 걱정했는데,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은 듯합니다. 많은 변화와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는 찬양을 드리며 믿음을 구합니다. 루마니아 소식 전해 올립니다.

##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8월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브라쇼브 작은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였는데 올해는 장소문제로 연합모임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펠디와라 교회는 마당에 야외공간을 만들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사로 봉사하고 식사준비도 해 주어 알찬 모임이 되었습니다. 잘 자라던 청소년들 중 일부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말씀으로 잘 세우고자 여름방학이 시작한 때부터 매주 수요일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4명의 성도들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플로리'자매는 남편과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여더니 그 후 남편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나누며 놀랍게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어 지금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며 봉사하려는 변화된 모습이 놀랍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의 파네 전도사가 수개월동안 몇 가지 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수집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잘 섬겨 주었습니다.

## ♣ 아라치 교회 주일학교

미국에서 사역하는 루마니아 목사님이 아라치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집시 아이들에게 겨울 잠바를 성탄절 선물로 준비를 해 주었는데, 토요일 주일학교에 3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라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 교육에서 방치된 많은 집시 아이들이 모임에 나오고 있고, 이들 중 몇 명의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함께 주일학교를 돕고 있지만, 집시들이 사는 지역 중에서도 거친 마을인 이곳 아라치에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하기에 더 많은 기도와 지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 ♣ 이단 '신천지'의 활동

한국의 이단 '신천지' 사람들과 루마니아 현지인 중 신천지의 일군이 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곳 브라쇼브 교회들을 타겟으로 침투하여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매주 시내에서 자신들의 신상을 숨기고 사람들을 접촉하여 시내 중심에 있는 교육센터로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쇼브 시내의 큰 교회에서 이미 비유폴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신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비유폴이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들은 외부인에게 쉽게 교회 강단을 내 주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신천지'에 대해 잘 모르기에 신천지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자매도 그 집단에 대해 모른 채 거기

서 진행하는 문화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가 저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큰 일 날 뻔 했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 ♣ 지도자 기도 모임

얼마전에 지도자들과 함께 산에 가서 야외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탁 트인 곳에서 목청껏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지도자들이 서로 조금씩이라도 재정을 모아서 조그만 기도처소를 마련해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돌아가며 기도처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이곳 루마니아에는 한국처럼 기도원 같은 곳이 없기에 서로 기도하면서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와서 지도자 훈련과정을 진행했는데, 내년 봄에도 와서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 훈련위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 ♣ 본국 선교매장과 가족 소식 및 기도제목

아내가 선교매장을 오픈한지 7개월이 되어갑니다. 루마니아는 서류공화국, 점검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고 검열이 까다롭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매장을 열고 있는 본국과 연결되고, 정말 저렴한 장소를 지인이 대여해 주어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매장을 열게 되었는데, 목표로하는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의 특성이 한국 사람과 달리 새로운 것에도 별 관심이 없는데 아무쪼록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재촉해 주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복음의 발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함께 섬기기로 한 동역자들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떨어져 혼자 지내왔고, 대학에서 아들이 뭘 하고 있는 지도 잘 모르는 무지한 부모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논문으로 몇 번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실히 인내하며 살아내는 아들이 고맙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 할 뿐입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의사고시를 잘 준비하고 본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찾아 나가도록, 예진이가 작은 체구 때문에 기죽지 않고 영.육 강건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기도제목

1.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영혼들을 섬기도록
2.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3. 펠디와라, 아라치, 뜨르너베니 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도록
4. 신천지의 활동에 잘 대처하여 현지인들이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예금주:GMS배만주) LG 070 8625-7488

어느새 주님 오심의 기쁨과 감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보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도 애정어린 관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께서 우리 각 자를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루마니아 배만주.이명자(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